

효종 시문학 연구*

이 현 지**

<目次>

I. 머리말	III. 효종의 시세계
II. 효종의 시인식	IV. 맺음말

<국문 초록>

왕자로서의 처신을 고민하던 孝宗은 병자호란 직후 인질로 끌려가 武를 숭상하는 淸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장수의 기질을 타고난 자신을 재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인질로서 겪는 고난에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통찰했다. 북벌에 대한 집념은 이로부터 지속되었다. 효종의 처세는 대명의리, 복수설치, 왕권강화의 차원을 넘어 조선 군주로서의 ‘사명감’과 증원에서 오랑캐를 전멸하고 천하를 통일하려는 ‘영웅심’에 기반을 두었다. 효종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지기는 아우 麟坪大君이었다. 효종은 인평대군과 시를 수창하는 시간 속에서 생기를 찾곤 했다. 朝淸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자로 파견되었던 인평대군은 효종에게 더없이 고마운 존재였다.

효종은 한계 상황의 심리적 고통을 시에 의지했는데, 시를 창작한 것은 물론 시를 되뇌는 행위를 통해 고뇌에서 벗어나려는 면모를 보였다. 시는 그에게 귀의처였고 기도문이었다. 현실에 대한 개탄, 북벌을 향한 일념, 우애를 위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912)

** 동국대학교 강사 / hyunjee@kebi.com

한 정성 등으로 집약되는 효종의 시는 당대 문풍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효종은 자신의 북벌 의지와 문예 취향에 부합되는 정두경의 시를 혹애함으로써 시의 표준을 정했다. 효종의 의지와 취향은 독서 경향에도 영향을 미쳐 張維가 精選한 『戰國策』이 필사되어 널리 읽혔다. 효종이 갈구한 인간형이 선진의 복수 이야기인 『전국책』에 실려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효종, 인평대군, 북벌, 왕도, 우애

I. 머리말

효종이라고 하면 북벌론¹⁾이 연상된다. 북벌론을 통해 효종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다. 북벌을 키워드로 삼아 탐구되던 기존의 연구는 효종이 북벌을 추구한 동기가 대명의리, 복수설치, 왕권강화에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만으로 한 인간,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군주를 해석하는 과정은 그의 진실한 의도에 대한 접근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효종의 처세를 보다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요청된다. 시나 편지처럼 내면에 근거한 글에는 새로운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장되어 있다. 효종은 널리 알려진 시조 ‘청석령’ 외에도 한시 100

1) 이경찬, 「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5.; 吳恒寧,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泰東古典研究』 9,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3.; 최소자, 「청과 조선」, 혜안, 2005.; 남은경, 「『瀋陽日記』 연구」, 『東洋古典研究』 22, 동양고전학회, 2005.;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韓國人物史研究』 7, 한국인물사연구소, 2007.; 남은경, 「병자호란과 그 후의 기록 『심양장계(瀋陽狀啓)』」,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8.; 허태용, 「17, 18세기 북벌론(北伐論)의 추이와 북학론(北學論)의 대두」, 『大東文化研究』 6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박수밀, 「조선후기 대청(對淸) 의식과 문화 수용 논리」, 『韓國漢文學研究』 47, 한국한문학회, 2011.

여 수를 남겼다. 본고는 효종의 한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종은 8년간의 인질 생활을 통해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 하늘이 자신에게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혹독한 시련 속에서 단련하도록 기회를 준 것을 통찰한다. 북벌에 대한 야망은 이때부터 솟구친다. 효종의 처세는 대명의리, 복수설치, 왕권강화의 차원을 넘어 조선 군주로서의 ‘사명감’과 중원에서 오랑캐를 전멸하고 천하를 통일하려는 ‘영웅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효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수록 북벌에 대한 집념이 강해지는데, 고비마다 시를 통해 극복하려는 면모를 보인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시는 그에게 귀의처이고 기도문이다.

효종의 문학에 대해 시조론²⁾과 작가론³⁾의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고는 효종의 시 인식과 어제시의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효종의 시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효종이 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효종이 당대 문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심이 담긴 내면 엿보기는 효종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열성어제』에 실린 효종의 시를 논의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효종실록』을 참고한다.

II. 효종의 시인식

효종은 극한 상황의 심리적 고통을 시에 의지했다. 마음을 위로하고 다스리는 주요한 수단인 시였다. 인질로 심양에 있을 때 감회를 표현한 시를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날을 견디지 못해 燕의 인질은 우는데, 언제 다시 보리오 漢의 위의 새로움.”⁴⁾이라고 울분

을 터트리는가 하면, “봉새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리를 날아가는데, 오늘 구름과 물 너머를 어찌 근심하리오.”⁵⁾라고 희망을 추구하는 의식의 변화를 보인다. 울화가 치밀어 안간힘을 쓰던 모습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봉새의 기상으로 탈바꿈하게 된 비결 중의 하나는 시 쓰기이다. 시 쓰기를 통해 鬱氣를 발산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고 정화한 것이다. ‘시는 성정을 읊고 정신을 유통시키는 것’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의 효용성에 대해 가르침을 준 사람은 尹善道이다. 효종은 1628년(인조 6)부터 인평대군과 함께 윤선도에게 배웠다. 1630년(인조 8) 효종은 唐詩를 뽑은 책 한 권을 윤선도에게 보내 교정을 부탁했다. 이때 책의 첫머리에 실은 시에서 효종이 선호한 시를 알 수 있다. “이날 밤새 술을 마신 것은, 성령을 기르는 것과는 상관없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모두 취했는데, 어찌 차마 혼자만 깨어 있겠는가.”⁷⁾라고 읊은 王績의 「過酒家」와 “태양은 아침 햇살을 뿜는데, 거문고에서 「鳥夜啼」곡을 들네. 상림원에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가지 하나 빌려 갖들지 못하네.”⁸⁾라고 읊은 李義府의 「詠鳥」를 첫머리에 실었다. 두 편의 시는 왕자로서의 처신을 고민하던 당시 효종의 심정과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윤선도는 첫머리의 시를 문제 삼았다. 왕적의 「과주가」는 방탕에 흘러 돌아오기를 잊은 뜻과 퇴폐하고 타락한 기운이 있고, 「영오」는 재능을 과시하는 행태와 출세하려고 구차하게 구하는 욕심이 들어 있으니, 시의 첫머리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악을 경계하기에도 부족하고 선을 본받기에도 부족한 시는 모두 불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어떤 시를 읽어야 하는가. 윤선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를테면 “전란을 어느 날 평정하고서, 노래하고 춤추며 장안에 들어갈까”는

5) 『列聖御製』 2, 「瀋中賜前參判朴漢」, p.124, “鵬撲扶搖九萬里, 何愁今日隔雲水.”

6) 尹善道, 『孤山遺稿』 卷3, 「送一大君房掌務書 宣文大王潛邸時 庚午」, “詩者所以吟詠性情, 流通精神, 不可以不知者也.”

7) 『全唐詩』 卷37, “此日長昏飲, 非關養性靈. 眼看人盡醉, 何忍獨爲醒.”

8) 『全唐詩』 卷35, “日裏颺朝彩, 琴中聞夜啼. 上林如許樹, 不借一枝枝.”

2) 秦東赫, 「孝宗의 時調考」, 『君子語文學』 3,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3) 이창현, 「죽오 효종론」, 『조선후기한시작가론』 1, 이회, 1998.

4) 『列聖御製』(규장각 영인본) 2, 「失題」, p.104, “此日不堪燕質泣, 何時重觀漢儀新.”

장부의 기상이 있고, “봄바람 살랑거릴 때 춤을 추었는데, 가을이 되니 비단 옷 입을 수가 없네”는 貞婦의 심사를 말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법칙에 관계있는 시는 행하는 데 유익하고, 사람의 마음과 사물의 情態를 잘 말한 시는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⁹⁾ 시 읽기에 관한 사부의 조언은 효종에게 각인되었던 듯하다. 이후 시련의 고비마다 시를 적절하게 활용했다.

병자호란 직후 심양에 끌려간 효종이 공감을 느낀 시는 白居易의 「琵琶行」이다. 「비파행」의 시적 화자는 젊은 시절, 장안에서 제일로 손꼽히는 娼女였으나 나이 들어 미색이 시들자 찾는 이가 없어 늙은 상인의 아내로 전락했다. 왕자로서 부귀를 누리다 인질의 신세가 된 효종은 「비파행」의 시적 화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비파행」아래 ‘옛날을 회상하고 지금을 생각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썼다.¹⁰⁾ 정서적으로 공명하여 연결감을 느낀 것이다. 시 읽기가 효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연에서 『詩經』, 「蓼莪」를 읽고 한 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성정(性情)에 근본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여 분발하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 있는데, 「육아」는 더욱 사람을 감동시키는 시이다. 나라에 수치가 있는데도 참으면서 세월을 보내니, 장차 무슨 닢으로 이 세상에 살겠는가. 「시경」을 읽다가 여기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오열한다.¹¹⁾

9) 尹善道, 『孤山遺稿』卷3, 「送一大君房掌務書 宣文大王潛邸時 庚午」, “然其有關於民彝物則者, 讀之有利行之益, 其能言於人情物態者, 覽之爲多識之資. 而其惡之不足以爲戒, 善之不足以爲法者, 皆程子所謂閑言語, 固無足觀也. 伏見此卷首絕此日長昏飲詩也, 有流蕩忘返之意, 委靡頹墮之氣. 次絕日裏曠朝彩詩也, 有矜己術能之態, 干進苟求之欲, 豈合置之於開卷之始也? 姑就此卷所載而論之, 則戎衣何日定, 歌舞入長安, 有男子之氣象, 爲舞春風多, 秋來不堪著, 道貞婦之心事.”

10) 宋時烈, 『宋子大全』卷149, 「孝廟御筆跋」, “右我孝宗大王所寫樂天詩也. 其下有感古懷今令人墮淚八字, 或謂此瀋館時所寫, 故有感於天涯淪落, 杜鵑啼血等語也.”

시는 성정에 근본하기 때문에 시를 읽으면 감동하여 분발하기도 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도 한다. 시를 통해 성정을 함양할 수 있다. 아버이를 그리는 시 「육아」를 읽고 효종은 仁祖를 추모하는 한편 자책한다. 그는 漢武帝가 平城에서 흉노군에게 포위되었던 高祖의 굴욕감을 설욕하려고 북벌한 일을 높이 평가했다.¹²⁾ 무제처럼 북벌을 추구하지만 자신에게 협조하는 신하를 찾기 어려워 고심하는 상황에서 「육아」를 매개로 가슴을 짓누르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효종은 자신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장수의 형상을 시에서 발견하고 심적 에너지를 구축한다. 鄭斗卿의 시 속에는 용감하고 뛰어난 협객과 자객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변경을 지키는 장수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정두경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武備에 관심이 없는 당대 조정의 신하들을 각성시키려는 듯 무의 중요성을 문학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두경의 문학적 특성은 오랜 인질 생활을 통해 武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된 효종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¹³⁾ 효종은 정두경의 시집 『東溟集』을 늘 御案 위에 두고 애독했다.¹⁴⁾

정두경의 시 중에서 특히 「楊經理北征歌十首·其三」를 벽에 붙여 두고 보곤 했다. “관산에 달 떠오르고 바다 구름 깊은데, 창을 비껴 든 한 나라 장군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네. 薊北의 가을에 장사를 모으니, 연나라 왕은 대 위에서 황금을 나눠주네”¹⁵⁾라고 읊은 「양경리북정가」는

11) 『孝宗實錄』, 「8年 1月 22日條」, “上御書講, 講『詩傳』‘蓼莪章’. 上曰 詩本性情, 故能令人感發懲創, 而至於‘蓼莪’, 尤令人感動處也. 國有羞恥, 而含忍度日, 將何顏面, 立於斯世乎? 讀『詩』至此, 不覺嗚咽.”

12) 『孝宗實錄』, 「誌文」, “故在東宮, … 嘗問宮僚, 漢之文 武孰勝, 皆曰 文帝勝, 王曰 武帝不忘平城之憂, 武帝勝.”

13) 남은경, 「인조말, 효종조의 문풍 변화 - 『심양장계(瀋陽狀啓)』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pp.466-467.

14) 正祖, 『弘齋全書』卷163, 『日得錄』 3, 「文學」 3, “曾聞孝廟常愛鄭斗卿詩, 長置『東溟集』於御案上.”

15) 鄭斗卿, 『東溟集』卷2, 「楊經理北征歌」, “關山月出海雲深, 漢將橫戈報主心.”

楊鏞의 복정을 칭송한 시인데, 燕昭王처럼 賢士를 모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염원으로 귀결된다. 이런 고사를 사용한 것은 황금대가 齊의 침략으로 치욕을 겪었던 소왕의 복수설치 의식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연소왕은 현사들을 초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궁극엔 제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노획하고 궁실과 종묘를 불살라 버린다. 완전한 복수를 한 것이다.¹⁶⁾ 효종은 저 시를 끊임없이 음미하며 복벌 의지를 다지고 영웅호걸을 갈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처지의 변화에 따라 애호하는 시가 바뀌었지만 효종에게 시는 일관되게 귀의처 혹은 기도문이었다. 사실상 마지막 기도문이 된 정두경 시의 개성은 효종의 복벌 의지와 문예 취향에 부합된다. 효종은 정두경의 시를 혹애함으로써 당대 시의 표준을 정해 문풍을 주도했다. 효종의 의지와 취향은 독서 경향에도 영향을 미쳐 張維가 精選한 『戰國策』이 필사되어 널리 읽혔다.¹⁷⁾ 효종이 갈구한 인간형이 선진의 복수 이야기인 『전국책』에 실려 있었던 것이다.

III. 효종의 시세계

1. 현실에 대한 개탄

봉림대군 시절, 효종은 인망이 있는 종친이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비운의 삶을 사는 것을 목도했다.¹⁸⁾ 師傅 尹善道에게 왕자로서

薊北高秋收壯士，燕王臺上散黃金。”

- 16) 임준철, 「정두경 시의 허구적 의상과 유희적 상상력」,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pp.83-85.
- 17) 남은경, 「조선중기 독서경향과 『전국책(戰國策)』」, 『대동한문학』 26, 대동한문학회, 2007, pp.358-363.
- 18) 仁祖의 숙부인 仁城君 李珙은 1628년(인조 6) 柳孝立의 역모에 추대되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自盡의 명을 받았다. 이희환, 「인조대의 정치적 논쟁과 인조」, 『전북사학』44, 전북사학회, 2014, pp.86-88.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았다. 윤선도는 효종의 비범한 재질을 보고 재주와 학식을 숨기도록 풍간하는 의미에서 “공자, 왕손과 어여쁜 나무 아래 노닐고, 즐거운 노래, 근사한 춤을 지는 꽃 앞에서 즐겼네.”라는 구절을 제시했다.¹⁹⁾ 권력을 추구할 수 없었던 당시의 효종은 저 구절을 경구로 여기고 풍류를 즐기며 무욕의 삶을 지향했다. 그런데 병자호란 직후 인질로 끌려가 武를 숭상하는 淸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강무, 사냥, 유희 등이 성리학적인 수사에 따라 억제되었는데 반해, 청에서는 만주족의 상무적, 유희적 전통과 관련된 야외 활동을 강조했다.²⁰⁾ 사냥 외에도 기마와 활쏘기 등 무예를 겨루고 화포를 쏘는 자리에 불러 다니는²¹⁾ 날들을 보내면서 타고난 장수의 기질을 가진 자신을 재발견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통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나라의 보존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굴욕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와 절망을 거듭하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憶昔園林滿眼花	옛날을 생각하니 원림은 눈 가득 꽃이었고
白鷗兩兩浴淸沙	갈매기 쌍쌍이 깨끗한 백사장에서 목욕을 했네
遙憐風景歸何日	멀리서 그 풍경 그리는데 어느 날 돌아갈까
唯有夢魂夜夜家	오로지 밤마다 집에 가는 꿈을 꾸네 ²²⁾

인질로 억류되어 있으면서 무상함을 느끼기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옛날은 아름답기만 하다. 그리운 고향은 풍경으로 다가온다. 눈이 닿는 곳마다 꽃이 만발하고 갈매기가 물가 깨끗한 백사장에서 짝지어

- 19) 정재륜, 『공사건문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p.125. 인용한 시는 劉希夷의 「代悲白頭翁」, “公子王孫芳樹下，淸歌妙舞落花前”이다.
- 20) 허태구,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심양(瀋陽) 억류와 인질(人質) 체험」, 『韓國思想史學』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pp.159-160.
- 21) 김남윤, 「『소현심양일기』 해제」, 『소현심양일기』 1, 민속원, 2008.
- 22) 『列聖御製』 2, 「賜鄭栢壽·其二」, p.128.

노니는 평화로운 풍경. 지금도 그 풍경 그대로 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갈매기와 벗하던 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절로 ‘언제 돌아갈까’라고 중얼거리게 된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다. 그 꿈이 간절해 깨어나면 흠어질 덧없는 꿈을 밤마다 꾸다. 귀가는 꿈에서만 가능하다.

꿈과 깨어남, 과거와 현재의 대립 사이에서 상실감에 시달리면서도 1638년(인조 16)부터 효종은 청군을 따라 明을 공략하는 전쟁에 참전해야 했다. 昭顯世子가 평소 疝症을 앓고 있는 데다 말을 잘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하기를 청했다.²³⁾ 그 후로 1639년(인조 17)과 1641년(인조 19)에도 종군의 명을 받고 蒙古 경계로, 山海關으로, 錦州衛의 松山堡로 출정해 明의 장수들이 항복하는 처참한 모습을 직접 봤다.²⁴⁾ 곤욕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밀려든 고난에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자질이 용렬하지 않은 자신으로 하여금 환란을 당하게 하여 능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찍이 弓馬와 戰陣의 일을 익히게 하며, 오랑캐 땅에 들어가 그곳의 형세와 산천의 지리를 알게 하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게 한 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뜻한 바가 있기 때문이었다.²⁵⁾ 하늘이 임무를 부여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효종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말했다.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리오.” 이 말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라고 탄식하던 공자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로 人事를 배우면서 위로 天理를 통달하니,

23) 소현세자 시강원 저·정하영외 역, 『심양장계 : 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 2008, pp.223-224.

24) 『孝宗實錄』, 「誌文」, “十九歲而丁丑正月, 得朝仁祖於南漢之城下, 仍質乎瀋陽. 既而西至于蒙古界, 南至于山海關, 又南至于錦州衛松山堡, 見諸將敗降.”

25) 宋時烈, 『宋子大全拾遺』 卷7, 「輓對說話」, “天之賦與於予者, 不甚昏慵, 且使予早罹患難, 增益不能, 且使予早習弓馬戰陣之事. 且使予入彼, 熟知彼中形勢及山川道里. 且使予久處彼中, 無有畏懼之心. 予之愚意自謂天意於予, 不至邈然也.”

나를 알아주는 이는 하느님일 것이다.”²⁶⁾라고 한 말을 연상시킨다.

怨尤何敢及天人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리오
自恥無謀到死濱	계책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 절로 부끄럽네
此日不堪燕質泣	이날을 견디지 못해 燕의 인질은 우는데
何時重覩漢儀新	언제 다시 보리오 漢의 위의 새로움을
心懸鳳闕頻驚夢	마음이 궁궐에 매여 있으니 꿈에 자주 놀라고
切齒龍庭厭見春	오랑캐 조정에서 절치부심하니 봄을 보기 싫네
爲問巖廊樞密地	조정의 중추부에는
昔年髻婦尙冠巾	지난해의 髻婦가 아직 벼슬하고 있는가 ²⁷⁾

절치부심하며 기회를 버리는 자신을 秦에 인질로 잡혀 고초를 겪은 燕의 태자 丹에 비유했는데 효종은 태자 단처럼 자객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랑캐인 청을 극복하고 문명의 상징인 漢의 정통을 되살리는데 자신이 직접 앞장설 야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병자호란 당시 都體府의 군권을 쥐고 결정적 실책을 저지른 金瑬와 金自點²⁸⁾ 일파를 멸시해 ‘髻婦’라고 했다. ‘염부’는 장부이면서 志氣가 없어 여자 같은 남자라는 의미이다. 김류는 영의정이자 都體察使로서 청과의 和議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고, 김자점은 서북 방어를 책임지는 도원수로서 청군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가 울랐는데도 무시하고 그 사실을 조정에 늦게 보고해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박탈했던 장본인이다.²⁹⁾ 효종은 훌륭한 장수의 부재가 패전의 원인이라고 여

26) 『論語』, 「憲問」, “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27) 『列聖御製』 2, 「失題」, p.104. 이 시는 소현세자의 시에 차운한 시인데, 소현세자의 시는 「扈聖翁傳」(『鶴阜先生文集』 卷10)에 실려 있다. 소현세자의 시는 다음과 같다. “身爲異域未歸人, 家在長安漢水濱. 月白庭心花露泣, 風清池面柳絲新. 黃鸝喚起遼西夢, 玄鳥來傳塞北春. 昔日樓臺歌舞地, 不堪回首淚霑巾.”

28) 『孝宗實錄』, 「6年 5月 2日條」, “仍及丙子之變, 慨然興歎曰 古人言將相交權, 天下無事, 向者首相金瑬與元帥金自點, 側目相對, 做得何事?”

졌다.³⁰⁾ 복수설치를 각오하여 漢人 화공 孟英光에게 越의 句賤이 會稽에서 뚝에 굴욕당한 일을 묘사한 ‘회계도’를 그리도록 했다.³¹⁾

효종은 당시 청의 강성함을 실감하면서도 내분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다. 1944년(인조 22) 2월 사부 徐元履에게 보낸 편지에 “이 나라의 섭정은 시기하고 의심할 뿐 아니라 가혹하니 나라이름이 새롭게 바뀌는 일이 반드시 머잖아 일어난다.”고 하며 새옹득실과 같이 호기가 올 것을 확신했다.³²⁾ 1944년(인조 22) 5월 북경이 함락되고 청 황제는 북경으로 천도했다. 효종은 천도 행렬과 함께 8월 북경에 도착해 궁궐은 모두 잿더미가 되고 오직 武英殿만 남아 있는³³⁾ 광경을 목격했다.

萬里殊方作此行	만리타국에서 이런 행차를 하니
時危事難一身輕	시운이 위태롭고 인사는 어렵고 일신은 가볍네
漢嬪怨恨琵琶曲	한나라 여자는 원한으로 비파곡을 타고
燕客悲歌出塞聲	연나라 객은 슬프게 출새곡을 부르네
滄海月明歸夢潤	창해의 달이 밝아 돌아가는 꿈을 꾸지 못하고
玉河風冷旅魂驚	옥하의 바람이 차가워 나그네 혼이 놀라네
何時再上蓬萊殿	언제 다시 봉래전에 올라
訴盡心中無限情	마음속의 무한한 정을 하소연하리오 ³⁴⁾

세력을 잃은 명과 중원을 점유한 청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양새를 보기 참담지만 처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인질의 몸이기 때문이

29) 한명기, 「병자호란 패전의 정치적 파장」, 『동방학지』 11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p.80.

30) 『孝宗實錄』,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行狀」, “嘗臨筵慨歎曰 人有恒言, 我國之人, 例多慳慳. 以丁丑兗山事見之, 則非軍卒之不精也, 實緣無良將也.”

31)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32, 「孟永光會稽圖記」, “世傳孝宗大王在瀋陽館, 遇孟永光者, 爲會稽之圖. 永光山陰人, 奚爲遠遊至遼瀋耶? 非俘則降也.”

32) 『列聖御製』 2, 「賜師傅徐元履」, p.162, “此國居攝之政, 猜疑苛酷之形, 日復一日, 號新之舉, 應必不遠, 吾輩眞如塞翁之失馬也. … 甲申二月初三日.”

33) 『소현심양일기』 4, 민속원, 2008, p.103.

34) 『列聖御製』 2, 「燕京有感」, p.98.

다. 북경이 함락되면서 명의 후비들은 청으로 끌려가고 자신은 명의 회복을 바라면서도 청군의 일원으로 수차례 참전했다. 중원의 주인이 바뀐 것에 관계없이 달은 비춘다. 달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폐허를 비추고 공허한 마음을 비춘다. 잠이 오지 않는다. 바람마저 차가운 가을이다. 명에 사대한 3백 년이 꿈만 같다. 명과 청이 교체되는 순간을 지켜 보면서 天道가 무상함을 느낀다. 효종은 실추된 王道가 재현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자신의 軒號를 ‘竹梧’³⁵⁾라고 지었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오동나무에 깃드는 것은 봉황이다. 봉황은 성군의 德治를 증명하는 것으로 周가 융성했을 때 높은 산마루에서 울었다. 효종이 자신을 봉황에 비유한 까닭은 덕치의 회복을 상징하고 싶기 때문인지 모른다.

昔聞掃盡腥羶穢	옛날에 들으니 오랑캐를 소탕하여
混一乾坤萬里疆	천하를 통일해 만 리를 굳건히 했다네
文物衣冠超百代	문물과 의관은 백대를 초월했고
英標俊彥列千行	영준한 사람들 천 열로 늘어서 있었네
時移事變陽墟斷	시운이 바뀌고 인사가 변하여 애끓고
地是人非恨獨長	땅은 맞는데 사람이 아니니 한이 유독 많네
秋草荒涼唯月白	가을 풀 황량한데 오직 달이 환하니
慙慙酌酒慰清光	은근히 술을 따름에 밝은 달빛이 위로하네 ³⁶⁾

明太祖는 元에 빼앗긴 중국의 옛 강토를 모두 회복하고 오랑캐의 비루한 풍속을 개혁했다. 덕망 있는 儒士를 널리 발탁하는 것이 至治의 요건임을 알고 인재의 유지와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효종은 명의 멸망 원인에 대해 毅宗의 不明을 지적했다. 의종이 환관을 신임하여 정사를 맡긴 탓에 멸망을 자초했다는 말이다.³⁷⁾

35) 인평대군의 시 「乙酉春 獨留瀋陽 仰和竹梧軒孝廟駐駕瀋陽時軒號 燕館便面韻 付送中官」(『松溪集』 卷1.)에 ‘竹梧軒’에 대해 “孝廟駐駕瀋陽時軒號”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36) 『列聖御製』 2, 「追次麟坪大君湯站韻」, p.99.

37) 『孝宗實錄』, 「3年 11月 30日條」, “亡國非一道, 而至若崇禎皇帝, 則內無聲色

인질로 곤경을 겪을 때 효종은 덕치를 강조하는 『書經』을 열독했는데³⁸⁾ “덕을 한결같이 하면 그 지위를 보전하고 덕을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九州가 망한다.”³⁹⁾는 말이 있었다. 지위에 오른 자가 덕을 잃어 지위를 보전하지 못하면 하늘은 또 그 아래의 지위에 있는 유덕자 중에서 최고의 유덕자를 선택해 그 지위에 앉힌다.⁴⁰⁾ 이 때문에 지금 오랑캐인 청이 중원의 주인이 된 현실은 잘못되었다고 여긴다. 효종은 조선 중심의 천하 질서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속내를 술잔을 비추는 달은 알기에 위로가 된다.

2. 북벌을 향한 일념

와신상담으로 비유되는 효종의 처세는 대명의리, 복수설치, 왕권강화만이 그 동기는 아니다. 북벌을 향한 효종의 집념 이면에는 조선 군주로서의 ‘사명감’과 세계를 바라보는 ‘영웅심’⁴¹⁾이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 내 땅으로 할 수 있다면, 초·월이며 강남인들 수용하지 못하리오.”⁴²⁾라고 하여 조선 중심의 천하 질서를 이루고자 했고, 세조는 천자인 단군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진족뿐 아니라 천하를 복종시켜 조선을 세계의 중심으로 확장하길 소원했다.⁴³⁾

之娛，外無游畋之樂，然猶不免於顛覆，蓋以不明之故也.”；「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行狀」，“予觀大明之制，使人執兵而侍，群臣奏事，不合於意則撲殺之，且設東西廡，以宦官主之，天下事皆由此出，跡其所爲，亡國已晚矣。”

38) 『孝宗實錄』,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行狀」, “王素好學，自就外傳，業益進，早通經史。雖在泥露之中，未嘗不典于學，曉窓寒燈，吾伊不輟，其書卽『書傳』也。”

39) 『書經』, 「咸有一德」, “常厥德，保厥位，厥德，靡常，九有以亡。”

40) 이택용, 「『서경』의 덕 개념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57, 동양고전학회, 2014, p.186.

41) 『孝宗實錄』, 「9年 2月 20日條」, “竊觀聖明，有英豪自處之意。”

42) 『列聖御製』 1, 「登白雲峰」, p.420, “若將眼界爲吾土，楚越江南豈不容。”

43) 拙稿, 「세조 어제시 연구」,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pp.336-343.

효종은 선조의 적개심과 백성의 여망에 부응해 중원에서 오랑캐를 전멸하고 천하를 통일하려는 이상을 품었다. 왕도 재현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지만 사심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경연에서 『書經』, 「禹貢」을 강할 때 효종은 몸소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창엽한 임금에 대해 사심이 있다고 평하면서 禹임금처럼 사심이 조금도 없기는 어렵다⁴⁴⁾고 했는데, 본심을 드러낸 말이라 하겠다.

효종이 북벌하려는 야심을 품은 것은 심양에 있을 때부터이다. 청군에 저항하다 포로가 되어 심양에 끌려왔던 한인들은 마침 그곳에 머물던 효종의 북벌 의지를 확인하고 反淸復明의 대업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1645년(인조 23) 귀국하는 효종을 따라 조선으로 망명했다.⁴⁵⁾ 효종은 宋의 명장 岳飛가 북벌을 주관한 張浚에게 보낸 시⁴⁶⁾에서 뜻을 취해 비장한 결의를 보인 바 있다.

我願長驅百萬兵	나는 백만 군사를 거느리고 먼 길을 달려
秋風雄陣九連城	가을바람 불 때 구련성에 웅대한 진을 치고서
指揮蹴踏天驕子	군사를 지휘하여 천교자를 짓밟고
歌舞歸來白玉京	노래하고 춤추며 백옥경으로 돌아오리라 ⁴⁷⁾

효종은 백만 군사를 호령하고 匈奴와 같은 오랑캐를 굴복시키려는 자신을 영웅으로 형상화했다. 『小華詩評』에서 이 시에 대해 말의 뜻이 호

44) 『孝宗實錄』,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行狀」, “講‘禹貢’，謂儒臣曰 禹之勤勞，與身經百戰，創業之主何如？對曰 不如禹之勤也。王曰 身經百戰之君，亦非不勤，而其心猶有所爲者。至於禹，少無私天下之心，此爲難也。”

45) 우경섭, 「조선후기 귀화 한인(漢人)과 황조유민(皇朝遺民) 의식」, 『한국학연구』 27, 인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pp.342-343.

46) 李晬光, 「芝峯類說」 卷12, 「文章部」 5, 「宋詩」, “世傳岳武穆手書送張紫岩北伐詩曰 號令雷轟迅，天聲動北隄。長驅渡河洛，直擣向燕幽。馬蹀閼支血，旗巢克汗頭。歸來報明主。恢復舊神州。按稗史言此詩雄渾悲壯，卽唐名家，不是過也。今見筆勢尤雄健，人謂辟邪，而稗史平並舉。… 按紫巖張浚號也。”

47) 『列聖御製』, 「失題」, p.118. 이 시에 차운한 八壯士の 일원인 蔡得沂의 『君臣言志錄』에도 효종의 시가 실려 있는데, 제목이 「藩館寫懷」로 되어 있다.

방하고 웅장하다고 하며 “치욕을 씻어 선왕들께 보답하고, 간혹을 제거하여 천고에 보답하네.”라고 한 唐太宗의 시에 뒤지지 않는다⁴⁸⁾고 평했다. 당 태종이 薛延陀를 격파함에 주변의 위구르족들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며 순순히 복종하자 막강한 위세를 과시했다면, 효종은 불세출의 무예 기량을 발휘하여 청 세력을 몰아낼 것을 맹세했다. 『壺谷漫筆』에 서는 이 시의 결구를 평하여 “돌아와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한 말이며 큰일을 할 의지가 있다.”⁴⁹⁾라고 했는데, 예언한 대로 소현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효종은 즉위했다.

효종은 즉위하면서 인조의 시대를 모범으로 하기보다 삼대의 왕도 정치의 기약했다.⁵⁰⁾ 湯王과 武王 같은 聖君이 모두 천명을 받아 무력으로 천하를 소유했듯이 그들처럼 大一統을 이루기 위해서는 덕이 있어야 했다. 하늘은 유덕자에게 명을 내려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천명은 무조건 한 통치 집단 또는 한 명의 통치자만을 지지하지는 않으며 인간들의 행위에 근거를 두어 지지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다.⁵¹⁾ 효종은 천명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면 바로 仁義를 행해야 한다고 여겼다.

何須阮籍哭途窮	완적은 어찌 꼭 막다른 길에서 통곡했는가
鵬搏扶搖九萬風	봉새는 회오리바람 타고 날아올라 구만리를 가네
磊落男兒事業志	너락한 남아 사업의 의지를
取看仁義力行中	인의를 힘써 행하는 것에서 취해 보네 ⁵²⁾

48) 洪萬宗, 『小華詩評』, “辭意豪壯, 殆不讓‘雪恥酬百王, 除凶報千古’之作.”
 49) 南龍翼, 『壺谷漫筆』, “末句拜玉京之語, 自爲歸膺寶位之議, 而大有爲之志, 已溢一篇之中, 惜乎天不祚宋, 齋恨於中道也.” 『壺谷漫筆』에는 結句의 ‘白’이 ‘拜’로 되어 있다.
 50) 『孝宗實錄』, 「即位年 11月 16日條」, “臣進言癸亥中興之初, 群賢滿朝, 事多可法. 殿下即答之曰 雖然, 當以三代爲法. 大哉言乎!.”; 「8年 8月 19日條」, “臣於己丑年入侍時, 進啓曰 癸亥反正初, 百爲皆好, 臣願聖上, 以此爲法云. 則上教以爲 反正初, 豈不可法, 而予則欲以三代爲法.”
 51) 이세현, 「古代 中國에서의 天과 人間의 만남과 그 方法 : 『詩經』과 『書經』에 나타난 天命觀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14, 한국유교학회, 2000, pp.4-5.

완적은 놀러 나갔다가 수레가 막다른 길에 이르면 좌절하여 통곡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봉새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날아오른다. 회오리바람이 구만리를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의 차이는 결국 뜻의 유무에 달려 있다. 청의 압박을 받는 현재 상황을 회오리바람으로 삼아 효종은 봉새의 기상으로 역량을 펼치려고 한다.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덕 수양과 함께 인재가 필요했다. 1654년(효종 5) 북경에 사신 갔다 온 沈之源이 청의 형세를 엿보니 위망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도 효종은 구천이 뜻을 멀리는 戰功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文種과 范蠡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인재를 얻고 난 다음에 의도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⁵³⁾고 했다. 재야의 어진 인재를 널리 구하던⁵⁴⁾ 효종은 魚水堂 연못에서 노니는 원앙을 보고 同德의 신하를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彩羽纒齊勝繡文	채색 깃이 가지런해 수놓은 무늬보다 나은데
貞心羞與鳥同羣	곧은 마음은 새와 무리 짓기 부끄러워하네
池水初解春波靜	연못의 얼음이 막 녹아 봄 물결 고요한데
正是雙雙戲水紋	바로 이때 쌍쌍이 노닐며 물무늬를 만드네 ⁵⁵⁾

얼음이 막 녹은 연못에 원앙이 노닌다. 원앙은 깃털 빛깔도 아름답고 마음도 곧다. 마치 외면과 내면이 조화를 이룬 군자 같다. 군자가 편당하지 않듯이 원앙은 다른 새와 무리를 짓지 않는다. 자신의 곧은 마음과 부합하는 새는 동료뿐이다. 짝을 이뤄 항상 함께 다니는 원앙은 물과 물

52) 『列聖御製』 2, 「追次麟坪大君八渡河韻」, p.121.
 53) 『孝宗實錄』, 「5年 5月 1日條」, “之源又曰 臣之奉使北京, 覘察彼中形勢, 則危亡之兆已見, 彼若失關內, 則我國之憂尤大矣, 上曰 上一乃心力, 則國其庶幾. 昔句踐得大夫種·范蠡而能成沼吳之績, 必須得人而後, 可以濟事也.”
 54) 『孝宗實錄』, 「7年 2月 27日條」, “伏見殿下, 臨朝側席, 思得賢才, 明揚側陋, 廣求遺逸, 求賢不可謂不勤矣.”
 55) 『列聖御製』 2, 「詠魚水堂鴛鴦」, p.113.

고기처럼 떼어놓을 수 없다. 이상적인 군신관계도 이와 같다. 어수당에서 효종은 북벌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송시열을 만났다. 이로 인해 어수당은 明君과 良臣의 만남의 장소로 부각되었고, 효종과 송시열의 관계는 漢의 중흥을 도모한 昭烈帝와 諸葛亮의 관계에 비유되었다. 소열제가 대의를 천하에 밝히려고 했더라도 제갈량이 없었으면 혼자서 이루기는 어려웠듯이, 효종이 『春秋』의 대의를 밝히려고 했더라도 송시열이 아니고는 그 뜻을 받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⁵⁶⁾

의기투합해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하에게 효종은 ‘형제로 생각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송시열 외에도 효종이 형제로 생각한 인물에는 八壯士가 있다. 팔장사는 효종이 인질이 되어 심양으로 갈 때 호종했던 군관으로 朴培元, 申晋翼, 吳孝誠, 趙壤, 張愛聲, 金志雄, 朴起星, 張士敏 등인데⁵⁷⁾ 8년간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기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기에⁵⁸⁾ 귀국한 뒤 어수당에서 關羽와 張飛처럼 의형제를 맺었다.⁵⁹⁾ 또

56) 『肅宗實錄』, 「39年 4月 27日條」, “向於昭烈, 雖欲明大義於天下, 若非諸葛之鞠躬盡瘁, 難於獨成, 聖祖雖欲明 『春秋』之大義, 若無先正臣宋時烈之盡忠竭力, 誰能將順?”

57) 李肯翊, 『燃藜室記述』, 「官職典故·別軍職廳」, “孝宗七年册置, 以晉邸時軍官陪往瀋陽者八人朴培元 申晋翼 吳孝誠 趙壤 張愛聲 金志雄 朴起星 張士敏處焉.” 여운필, 「김이만(金履萬)의 <호성옹전(扈聖翁傳)> 연구(研究)」(『石堂論叢』 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p.222.)에 따르면 『심양일기』에는 팔장사가 처음부터 함께 陪行하지 않았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가장 빠른 시기인 1639년 1월 1일부터 나타나는 이가 大君軍官 신진익이고, 이어서 대군군관 박배원, 義州禁軍 박기성, 대군군관 오효성, 평안도금군 장사민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평안도금군 김지웅과 司僕主簿 조양은 1644년에 처음 나타나고 장애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이들이 처음부터 함께 호종하지 않았고, 조양과 壯武隊로 추정되는 장애성을 감안하면, 그 역할도 금군과 대군군관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8) 未詳, 『八壯士吳公遺事』, 「廟朝與八壯士修稷序文」, “親義之情 處變逾固 則未知前輩亦有此也.” 제목 아래에 ‘御製又有御筆’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59) 金履萬, 『鶴阜先生文集』 卷10, 「扈聖翁傳」, “當時結義關張同, 魚水堂前誓始終.” 扈聖翁은 팔장사 중 한 사람인 金志雄의 별칭이다.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별근직을 내리고 시위의 임무를 부여하여 자신의 신변 보호는 물론 북벌 추진을 위한 왕권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했다.⁶⁰⁾

당시 북벌에 대한 분위기는 회의적이었다. 척화파인 李敬輿가 “국력이 미약한데 성상의 存心이 너무 지나치니,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한 말에 신하들의 견해가 응축되어 있다. 효종은 북벌을 그 자신이 하지 못하면 끝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위를 계승할 세자의 자질을 볼 때,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몰라도 북벌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⁶¹⁾ 효종이 이경석의 말에 “마음이 매우 통분스러운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어 탄식한다.”⁶²⁾고 답한 것은 이 때문이다. 莊烈王后 趙大妃를 위하여 萬壽殿을 지을 때 효종은 터를 살핀다는 핑계로 사관도 없이 도제조 鄭太和와 제조 元斗杓, 鄭維城, 許積 등을 만나 술을 권하면서 마음속에 품은 뜻을 은밀히 말했다.

내가 군비에 유의하여 조치한 일이 많았다. 병기를 만들고 갑옷을 수선하는 일은 나라에 나이 많은 임금이 있을 때 해야지 어린 임금을 받드는 자가 할 일이 아니다.⁶³⁾

집권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아직 뜻을 이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효종은 북벌은 자기 당대에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꺼냈으나 신하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효종은 신하들이 모두 눈앞의 부귀만

60) 장필기, 「조선후기 별근직의 조직과 그 활동」, 『사학연구』 40, 한국사학회, 1989, p.283.

61) 宋時烈, 『宋子大全拾遺』 卷7, 「輟對說話」, “大槩今日事, 於吾身不能有, 則將不能有爲矣. 世子之令德, 足以安保國家, 如此至難且危之事, 不可以期望矣.”

62) 『顯宗實錄』, 「9年 10月 30日條」, “我先王以大聖人, 遭時不幸, 而欲昭大義於天下者, 如青天白日, 故相臣李敬輿以爲, 國力微弱, 而自上存心太過, 無乃事未成而反召禍乎. 先王答曰 至痛在心, 有日暮途遠之歎.”

63) 정재륜, 앞의 책, p.118.

도모하여 자신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⁶⁴⁾ 군사들도 祿仕에만 마음을 둘 뿐 軍政에는 뜻이 없었다.⁶⁵⁾ 실상가상으로 믿고 의지한 인평대군마저 죽고 아우의 죽음으로 크게 상심한 나머지 효종도 병이 들었다. 그때 남달리 총애한 부마 東平尉 鄭載崙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心事未成死不休	마음먹은 일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그만두지 못하는데
居然添得一身憂	결국 일신의 근심이 늘어나네
碧天無際雲擾擾	끝없는 푸른 하늘에 구름이 어수선하여
獨倚危欄滿目愁	홀로 높은 난간에 기대니 눈 가득 시름겹네 ⁶⁶⁾

마음먹은 일이란 북벌이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그만두지 않겠다는 말에서 효종의 집념을 읽을 수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낙담한 효종은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싶어 높은 누대에 올라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 자신이 뜻하는 일에 먹구름이 드리운 듯하다. 天心을 알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다 시름겹다. 북벌을 함께 도모할 자는 오랑캐의 손에 죽은 집안의 자제들뿐이라고 여길⁶⁷⁾ 정도로 효종의 뜻에 협조하는 신하가 없었다. 하지만 흉년이 들어 구황정책이 시급한 상황에 군사를 늘린⁶⁸⁾ 일도 사실이고 보면 북벌을 향한 일념은 끝까지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64) 宋時烈, 『宋子大全拾遺』 卷7, 「輟對說話」, “予嘗於萬壽殿經營時, 託於相址而往坐一處, 引若干人, 微說此事以試之, 皆邈然無以爲意者, 何痛如之? 諸臣惟目前富貴是圖, 恐爲此事而國亡家覆, 故言及此事, 莫不寒心, 予空自慨歎而已. 渠輩皆但爲子孫計而不肯助我.”

65) 『孝宗實錄』, 「10年 閏3月 30日條」, “今之武夫, 一爲兵使, 則志氣已滿, 唯有祿仕之心, 無意於戎政, 豈不寒心哉?”

66) 『列聖御製』 2, 「戊戌未寧時書賜東平尉鄭載崙」, p.117.

67) 宋時烈, 『宋子大全拾遺』 卷7, 「輟對說話」, “予嘗以爲與我共此事者, 其死虜家子弟也.”

68) 『孝宗實錄』, 「9年 9月 9日條」, “上曰 都監之兵, 只四千餘人, 今欲加選, 以滿五千之數矣. 浚吉曰 臣意則荒政甚急, 欲以養兵之穀, 移賑飢民耳.”

3. 우애를 위한 정성

인평대군을 못 본 지 몇 달째 되던 날, 효종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평대군의 집에 거동했다. 효종이 막 도착했을 때 병을 앓던 인평대군은 숨을 거두었다. “아! 세상에 누가 부모형제가 없겠는가만 어찌 형제의 정과 같은 것이 있겠는가.”⁶⁹⁾ 효종이 쓴 인평대군의 祭文은 이렇게 시작된다. 형제는 나이가 비슷해 사부에게 함께 배웠고 취향도 같아 날마다 시를 수창했다.⁷⁰⁾ 길례를 올린 뒤에는 형제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 보고 살았다. 『爾雅』에서 산의 동쪽과 산의 서쪽이라는 뜻을 취해 효종의 집을 ‘朝陽樓’라고 하고, 인평대군의 집을 ‘夕陽樓’라고 했다.⁷¹⁾ 효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동궁에 들어가게 되자, 인평대군은 조물주가 우애를 시기한다고 여겼고, 효종은 임금이 되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왕가의 예법이 엄하여 형제가 이전처럼 어울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⁷²⁾ 1645년(인조 23) 세자로 책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늦가을, 효종은 인평대군의 집에 거동해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사는 아우를 부러워했다.

世上浮名摠是空	세상의 헛된 명성 모두 부질없으니
臨流豪興一杯中	흐르는 물에서 호방한 흥취 한 잔 술 속에 있네
高車局束誠還歎	높은 가마에 속박되어 진실로 오히려 한탄하니
泉響滔滔恨不窮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에 한이 끝이 없네 ⁷³⁾

69) 『列聖御製』 2, 「諭祭麟坪大君文」, p.136, “嗚呼! 世間誰無父母兄弟, 而豈有如兄弟之情愛乎?”

70) 正祖, 『弘齋全書』 卷22, 「麟坪大君 墓致祭文」, “郵筒迭傳, 篋宮填商.”

71) 正祖, 『弘齋全書』 卷176, 『日得錄』 16, 「訓語」 3, “孝廟龍潛舊邸曰朝陽樓, 麟坪故宅曰夕陽樓, 蓋取周禮山西山東之義.”

72) 『列聖御製』 2, 「諭祭麟坪大君文」, p.136, “予亦猥膺睿簡, 遽入春邸, 花朝月夕, 攜手相會, 伯仲壘篋, 頡之頡之之樂, 皆歸虛套耶. 汝常歎曰 何世上造物之猜至此耶. 同氣之情雖重, 天王家禮法截然, 曷嘗有伊昔之樂乎. 予輒愀然不樂曰 汝不須興言及此, 吾無樂乎爲君.”

헛된 명성이 자신의 삶을, 호방한 흥취는 인평대군의 삶을 나타낸다. 인평대군의 집은 수석이 아름답기로 서울에서 이름이 났는데, 映波堂, 清漪堂⁷⁴⁾ 등 堂의 이름이 물과 관련되듯 막힘없이 흐르는 물은 인평대군의 삶을 상징한다. 반면 높은 수레는 효종의 신분을 상징한다. 세자라는 신분이 자신을 구속한다는 의미로 높은 가마 타는 것을 ‘속박(局束)’이라고 표현했다.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니 가슴까지 시원한데, 이를 뒤로 하고 궁궐로 돌아가려니 문득 한스럽다. 효종은 거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답답해하며 자신을 ‘우리에 갇힌 원숭이’⁷⁵⁾에 비유하기도 했다. 효종이 궁궐 밖으로 나오는 데는 제한이 있으므로 인평대군이 형을 만나기 위해 자유롭게 궁궐에 출입했다. 효종은 궁궐에 핀 연꽃을 보다가 아우가 떠올라 선취를 맛보러 오라는 시⁷⁶⁾를 보내 인평대군을 초대했다. 형제는 비에 젖은 연꽃을 함께 감상했다.

池波激瀾漲溝渠	연못 물결 찰랑찰랑 못에 넘치는데
雲物淨新霽景初	활짝 개인 풍경이 깨끗하고 새롭네 [春宮]
柳外金梭鶯睨睨	버들 너머 황금 북 피꼬리 소리 곱고
山頭煙帳樹森疎	산봉우리 안개 장막에 싸인 수목은 무성하네 [小臣]
羅衫尙熱凝珠汗	비단 적삼 아직 더위 땀방울 맺히는데
夕照生涼上玉除	석양에 서늘한 기운이 생겨 섬돌에 오르네 [春宮]
小苑風清花政發	작은 뜰에 바람이 맑고 꽃이 마침 피어나
荷香共賞奉瓊琚	연꽃 향기 함께 감상하며 아름다운 시 받드네 ⁷⁷⁾ [小臣]

73) 『列聖御製』 2, 「麟坪大君家後小泉謾吟二絶·其二」, pp.118-119.
 74) 金埴, 『潛谷先生遺稿』 卷12, 「麟坪大君墓誌銘」, “居第在城東駱峯下, 泉石之勝, 甲於長安, 多植異花奇卉, 群芳交映, 別構小堂於園中, 有映波·清漪·最樂·四宜之號.”
 75) 『列聖御製』 2, 「樂善齋秋日閑吟二首·其二」, p.119, “夕陽煙柳倚危軒, 愁恨還同鎖檻猿.”
 76) 『列聖御製』 2, 「夏日賜麟坪大君」, pp.111-112, “朱欄曲砌傍池塘, 雨打荷花送暗香. 寄語紅塵奔走客, 清幽仙趣暫來嘗.”
 77) 『列聖御製』 2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인평대군의 문집 『松溪集』 卷1에 「遜志堂 夏日聯句」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세자가 공부하는 遜志堂 옆에는 큰 연못이 있었다. 여름날 비가 내려 연못의 물은 넘칠 듯이 찰랑거리고 풍경은 씻은 듯이 깨끗하다. 녹음 짙은 버드나무에서 노래하는 피꼬리 소리는 청아하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 우거진 수목은 안개에 싸여 있다.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아 땀이 나더니 저녁에는 서늘한 가을 기운이 인다. 비가 온 뒤에 바람에 실려 오는 연꽃 향기는 한층 진하다. 이때 효종과 인평대군은 그윽한 향기와 맑은 기운을 감상하며 聯句로 시를 지었다. 효종은 아우와 수창하는 시간 속에서 생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평대군이 며칠이라도 입궐하지 못하면 회포를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고 하며 시를 지어 보내 화답하기를 청하기도 했다.⁷⁸⁾ 산수를 좋아하는 인평대군이 天磨山과 聖居山 등을 유람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는 술과 과일을 내리면서 아우를 생각하는 마음을 시에 담았다.

寒聲已逐鶯聲迴	찬바람이 벌써 기러기 소리를 따라 돌아와
霜葉先紅錦繡堆	상엽이 먼저 붉게 물들어 비단처럼 쌓였네
樂極那忘青瑣閣	즐거움이 지극해도 어찌 궁궐을 잊었으랴
登高應陟白雲隈	오른 곳이 높으니 응당 흰 구름 가이겠지
飛流百尺添新興	백 척의 폭포는 새로운 흥을 더하고
古寺千年感舊哀	천년의 옛 절은 오랜 슬픔 느끼게 하네
賞罷歸期何日是	감상을 마치고 돌아올 날은 언제인가
佇看詩賦相如才	사마상여의 시부 보기를 기대하네 ⁷⁹⁾

기러기가 날아오는 가을, 바람에 떨어진 단풍잎이 땅을 수놓아 비단을 깔아 놓은 듯하다.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천마산에 오른 인평대군은 떠올리자, 구름을 밟아래 깔고서 풍경을 형과 함께 즐기지 못해 아쉬워

78) 『列聖御製』 2, 「賜麟坪大君」, pp.144-145, “日中不見數日, 良不任願言之懷. 昨者之韻, 今始效嘖一笑可也. 或再和亦可, 如不得則更貽他韻, 以作一往一來之資如何?” 제목 아래에 “壬辰, 時大君方在金剛山”이라는 주석이 있다.
 79) 『列聖御製』 2, 「賜麟坪大君·其二」, p.101.

하는 마음이 궁궐에서도 느껴진다. 효종은 백이나 천과 같이 거대한 숫자를 활용해 박연폭포의 장관과 淨慈寺의 고색창연함을 상상한다.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긴 아우의 시를, 漢武帝를 사모하는 陳皇后的 마음을 담은 司馬相如의 「長門賦」에 비유하여 기다리는 뜻을 전했다.

효종은 인평대군에게 ‘돌아오는 날이 언제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인평대군이 거의 매년 사신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청이 조선에 요구한 고급 외교의 조건이기도 했다. 왕자를 입조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인질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인 동시에 최고의 성의를 표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인평대군과 세자 외에는 다른 왕자들이 없었으므로 인평대군 혼자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⁸⁰⁾ 효종은 인평대군이 떠날 때 한스러워했고 돌아올 때 압록강 밖에서 사람을 보내 술과 편지로 위로했다.⁸¹⁾

夜聞歸鴈起邊思 밤에 돌아오는 기러기 소리에 변방 시름 일었는데
 曉得燕山萬里書 새벽에 연경 만 리에서 온 편지를 받았네
 知爾相逢雖不遠 너와 상봉할 날 멀지 않은 줄 알지만
 願言日月速居諸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네⁸²⁾

밤에 북쪽에서 돌아오는 기러기 소리를 듣고 연경에서 고향을 그리워할 아우를 생각했는데, 새벽에 마침 아우의 편지를 받았다. 부역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용인 『詩經』, 「伯兮」에 사용된 시어 ‘願言’

80) 이영춘, 「인평대군의 연행록 : 『연도기행』, 『사학연구』 82, 한국사학회, 2006, p.57.

81) 『孝宗實錄』,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行狀」, “每因朝家乏使, 陳謝事重, 不得已使大君奉命, 未免頻仍. 去時依依有解手之恨, 來時專价遠逆于鴨江之外, 慰之以法醢親札. 逢輒倍歡, 悲喜兼至, 蓋常棣之湛樂, 未足以喻其至情也.” 인용한 시 외에도 관련된 시에 「燕槎歸路 到鳳城 王人賚玉札珍羞以來 感懷 旣激 仰和御製」, “千里關山好好廻, 多隨福祿盡消災. 淇江處處唯桃李, 寧忍此時空過哉.”가 있다. 『列聖御製』 2에는 실려 있지 않고 인평대군의 문집 『松溪集』 卷1에 실려 있다.

82) 『列聖御製』 2, 「麟坪大君回到龍灣偶吟一絕驛委賜」, p.115.

을 활용해 아내가 남편을 그리듯 아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인평대군이 돌아오면 함께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담론하는 것이다.⁸³⁾ 효종은 인평대군이 사행을 다녀오면서 지은 시에 모두 차운했다. 아우에 대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당시 조선이 청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파국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은 인평대군과 같은 유능한 사신이 그 사이에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朝淸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자로 파견되었고 그때마다 외교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인평대군⁸⁴⁾은 ‘宗子是 나라의 城’이라는 『詩經』, 「板」의 표현 그대로였다. 인평대군이 귀국하여 杆城에 목욕하러 가기를 청했을 때 효종은 흥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데도 허락했다.⁸⁵⁾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애쓴 인평대군에게 그렇게라도 보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간의 우애는 흔들리지 않았다. 인평대군이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을 접하고도 효종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뿐인 아우를 몹시 사랑하는데, 흉악한 무리들이 감히 나의 골육을 이간질하려고 하니, 어찌하여 나의 우애가 사람들에게 미덥지 못하단 말인가. 내 아우를 모해하는 자가 있는 것은 바로 내 허물이다.”⁸⁶⁾라고 자책하며 아우를 보호했다. 인평대군이 죽었을 때 효종은 잦은 사신 행

83) 『列聖御製』 2, 「追次麟坪大君金山韻·其二」, p.129, “何當東路宅, 把酒共論詩.”

84) 인평대군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이영춘, 앞의 논문. 참고.

85) 『孝宗實錄』, 「3年 9月 2日條」; 「3年 10月 6日條」, “麟坪大君潛請沐浴於杆城地, 命給馬.”; “政院啓曰 大君往沐于杆城地, 轉向他道, 已涉不當. 況兩道大無, 餓殍相望, 當此之時, 大君之行, 留連郡邑, 經月不還, 人馬廚傳之弊, 不可勝言. 外人或謂大君將遍踏嶺東, 即宜下諭, 使之速還. 且大君之往安邊, 非是公行, 而監司李基祚, 違例出待, 請推考. 答曰 不能教弟之失, 予自當之, 咸鏡監司不必推考. 且每歲千里燕山之行, 非其任, 而不憚層氷·火雲, 獨自勞苦, 故予憐而許之.”

86) 金埴, 『潛谷先生遺稿』 卷12, 「麟坪大君墓誌銘」, “申五月, 有徐忤者上變, 言甚不測, 誣陷諸臣, 辭及於公. 上燭其詐, 出御正殿門, 謂諸大臣曰 予惟一弟甚愛重, 兇徒敢欲離我骨肉, 豈予友于之誠, 不能孚於外人也? 謀危予弟, 是予過也.”

차의 피로와 誣告로 인한 상심 때문이라고 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지엄한 군신 관계이면서도 돈독한 형제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 후대 사람들은 ‘효종의 우애는 하늘이 낸 것’⁸⁷⁾이라고 칭송했다.

IV. 맺음말

효종의 작품은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갈 때 지은 시조 ‘청석령’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조 외에도 감회를 읊은 시 100여 수를 남겼다. 효종에게 시는 鬱氣를 발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단이었다. 극한 상황에서 호소할 길 없는 마음을 시에 담은 것은 물론 시를 되뇌는 행위를 통해 심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면모를 보였다. 본고는 효종의 시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효종이 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효종이 당대 문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진심이 담긴 시를 통해 효종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다.

효종은 병자호란 직후 인질로 끌려가 武를 숭상하는 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만주족의 상무적 전통과 관련된 사냥, 기마, 활쏘기 등 무예를 겨루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장수의 기질을 타고난 자신을 재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인질로서 겪는 고난에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통찰했다. 북벌에 대한 집념은 이때부터 계속되었다. 효종의 집념 이면에는 조선 군주로서의 ‘사명감’과 세계를 바라보는 ‘영웅심’이 있었다.

효종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지기는 아우 인평대군이었다. 효종은 인평대군과 시를 수창하는 시간 속에서 생기를 찾곤 했다. 인평대군이 사행을 다녀오며 지은 시에 효종은 모두 차운하여 아우에 대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조청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자로 파견되었던 인평대군은 효종에게 더없이 고마운 존재였다. 지엄한

군신 관계이면서도 돈독한 형제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 후대 사람들은 ‘효종의 우애는 하늘이 낸 것’이라고 칭송했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실에 대한 개탄, 북벌을 향한 일념, 우애를 위한 정성 등으로 집약되는 효종의 시는 당대의 문풍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효종은 자신의 북벌 의지와 문예 취향에 부합되는 정두경의 시를 혹애함으로써 시의 표준을 정했다. 효종의 의지와 취향은 독서 경향에도 반영되어 張維가 精選한 『戰國策』이 필사되어 널리 읽혔다. 효종이 갈구한 인간형이 선진의 복수 이야기인 『전국책』에 실려 있었던 것이다. 효종의 어제시를 바탕으로 당시 외교사, 문학사, 문화사의 중심에 자리한 왕실 인물의 문학 연구로 외연을 넓힌다면 당대 문화 현상의 단서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87) 李瀾, 『星湖僊說』 卷17, 「人事門·尹鑣獨啓」, “孝廟友愛天至.”

<參考 文獻>

『論語』 『詩經』 『書經』 『全唐詩』
 『孝宗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이하 한국고전종합 DB.로 표기)
 『顯宗實錄』, 한국고전종합 DB.
 『肅宗實錄』, 한국고전종합 DB.
 奎章閣, 『列聖御製』, 규장각 영인본.
 金履萬, 『鶴阜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65, 한국고전종합 DB.
 金 堉, 『潛谷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 86, 한국고전종합 DB.
 南龍翼, 『壺谷漫筆』, 규장각 영인본.
 成海應 『研經齋全集』, 『韓國文集叢刊』 274, 한국고전종합 DB.
 소현세자 저·김동준의 역, 『소현심양일기』 1·4, 민속원, 2008.
 소현세자 시강원 저·정하영의 역, 『심양장계 : 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 2008.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13, 한국고전종합 DB.
 尹善道, 『孤山遺稿』, 『韓國文集叢刊』 91, 한국고전종합 DB.
 李肯翊, 『燃藜室記述』, 한국고전종합 DB.
 李晬光, 『芝峯類說』, 을유문화사, 1998.
 李 潛, 『松溪集』, 『韓國文集叢刊』 35, 한국고전종합 DB.
 李 翼, 『星湖僊說』, 한국고전종합 DB.
 鄭斗卿, 『東溟集』, 『韓國文集叢刊』 95, 한국고전종합 DB.
 정재륜, 『공사건문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正 祖,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 267, 한국고전종합 DB.
 蔡得沂, 『君臣言志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洪萬宗 저·안대회 역, 『對校譯註 小華詩評』, 국학자료원, 1995.
 미 상, 『八壯士吳公遺事』,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남은경, 「인조말, 효종조의 문풍 변화 - 『심양장계(瀋陽狀啓)』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조선중기 독서경향과 『전국책(戰國策)』」, 『대동한문학』 26, 대동한

문학회, 2007.
 여운필, 「김이만(金履萬)의 <호성옹전(扈聖翁傳)> 연구(研究)」, 『石堂論叢』 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우경섭, 「조선후기 귀화 한인(漢人)과 황조유민(皇朝遺民) 의식」, 『한국학연구』 2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이세현, 「古代 中國에서의 天과 人間의 만남과 그 方法 : 『詩經』과 『書經』에 나타난 天命觀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14, 한국유교학회, 2000.
 이영춘, 「인평대군의 연행록 : 『연도기행』」, 『사학연구』 82, 한국사학회, 2006.
 이택용, 「『서경』의 덕 개념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57, 동양고전학회, 2014.
 이현지, 「세조 어제시 연구」,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이희환, 「인조대의 정치적 논쟁과 인조」, 『전북사학』 44, 전북사학회, 2014.
 임준철, 「정두경 시의 허구적 의상과 유희적 상상력」,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장필기, 「조선후기 별근직의 조직과 그 활동」, 『사학연구』 40, 한국사학회, 1989.
 한명기, 「병자호란 패전의 정치적 파장」, 『동방학지』 11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허태구,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심양(瀋陽) 억류와 인질(人質) 체험」, 『韓國思想史學』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Poetry by King Hyojong / Lee Hyun Jee**

100 works of King Hyojong's poems are recorded in 『Yeolseong Eoje(列聖御製)』but any examination of the King Sejo's literature hasn't been performed. This study analyzed his recognition and view of poetry.

Hyojong's poems is packed produce a "sense of mission" Joseon monarch as the sentiment of 'effectiveness'. If he has a 'heroism' overlooking the world. Hyojong desire presupposes the recognition of the Civilized nation. Bukbeol not in his assignment, but this is not without personal mind for a royal realized as soon monarch's Civilized nation. Hyojong did defy poetry as a medium of politics. King Hyojong is a poem to his most intimate inner brother. He has functions as a means to govern the mind.

【Key words】 King Hyojong, Inpyeong infante, Northern Expedition, The rule of right, Brotherly love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

* Lecturer of Dongguk Univ. / hyunjee@kebi.com